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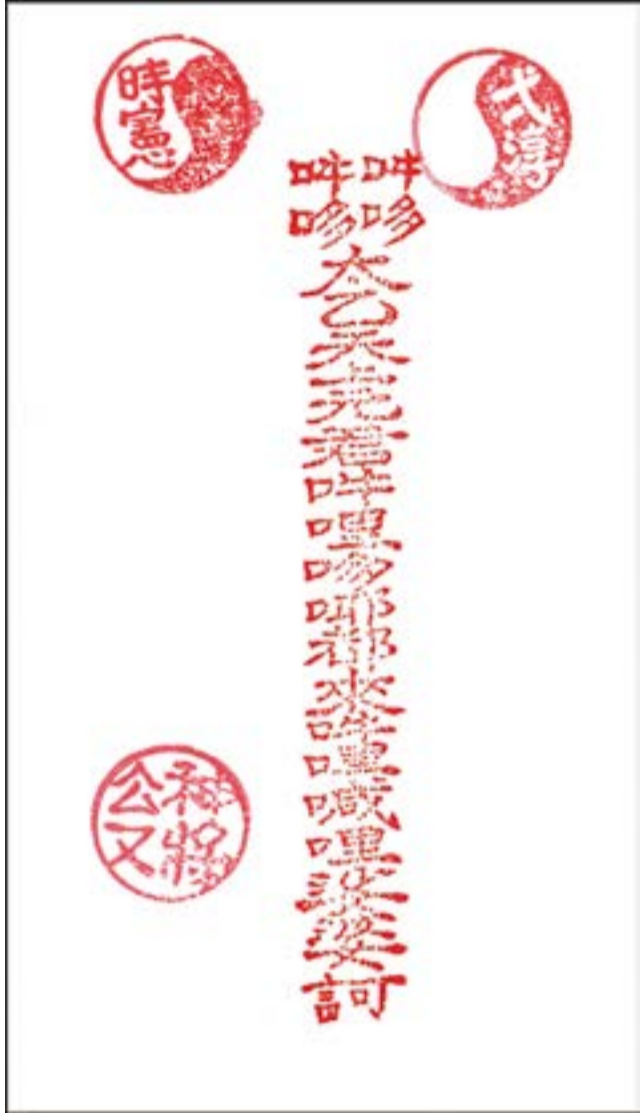


의통과 해인

(지난호에 이어)

선도(仙道)의 의통은 지폐 크기의 한지(韓紙)에 경면주사로 태을주를 쓴 것이다. 이것은 쓴 지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3년마다 다시 써야 한다고 전한다.

증산교본부의 의통은 호신부(護身符)와 호부(戶符)로 나누어진다. 호신부는 지폐 크기의 한지에 가운데는 태을주(太乙呪)를 찍고, 왼편 위에는 태극(太極) 모양의 시현인(時憲印)을 찍고, 오른편에는 태극 모양의 대성(大聖) 즉 증산의 이름인 일순(一淳)을 찍은 것이다. 호부는 호신부와 같은 크기의 한지에 가운데는 태을주를 찍었고, 왼편 위쪽에는 무사태평인(無事太平印)을 찍었고, 오른편 아래쪽에는 신장공우(神將公友)를 찍은 것이다. 이중성(李重盛, 1897 - 1958)이 편술(編述)한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1992)에는 의통의 크기와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호신부(護身符)

증산교의 대표적 경전인 『대순전경(大巡典經)』에는 해인(海印)이라는 용어가 한 번 나오는데, “잘 믿는 자에게 해인(海印)을 전해주리라.”(3장 42절)라는 구절이다. 여기서 의통(醫統)과 해인(海印)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증산교단에는 의통과 해인을 같은 것으로 보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다. 어떤 교단에서는 해인을 증산이 남긴 친필 저작인 『현무경(玄武經)』에 나오는 특정한 부(符)를 변산(邊山)에서 생산되는 동도지(東桃枝)에 새긴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또 병겁이 발생할 때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해인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의통인패(醫統印牌)를 가진 6명으로 이루어진 1개 조를 이룬 육인(六任)이 해인에 경면주사(鏡面朱砂)를 묻혀서 주검의 얼굴 한가운데에 있는 인당혈(印堂穴)에 찍은 다음, 태을주를 외우고 그의 사지를 주물러 소생케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리는 증산교단의 각 교파에서 매우 비밀리에 그리고 신비하게 이야기되는 부분 이어서, 공식적으로 자파의 믿음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기록은 없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증산교단에서는 의통과 해인을 같은 범주로 믿고 있으며, 해인이 의통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장욱의 『용화도장 지킴이』(2004)에 따르면 실제로 이 의통인패와 해인이 증산교본부에서 1945년 8.15해방 직후,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 음력 2월, 1964년부터 1968년 봄까지의 기간, 1984년 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실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호가 무진년(1928) 동지(冬至)에 창립한 동화교(東華教)는 1936년 4월에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준(準) 민족운동이라고 규정되어 조선총독부의 명령에 따라 결국 교단이 해체되었다. 이후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자마자 동화교의 주도 세력이 모여 대법사(大法社)를 조직하였다. 1968년에는 동도교(東道教) 증산교회(甌山教會)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후 증산교(甌山教), 증산교본부(甌山教本部) 등으로 불렸다.

이 의통을 만드는 과정에는 아직 이성(異性)을 모르는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의통을 만들기 위



『현무경』 첫 장에 나오는 언청계용신부

해서 전북 부안군 변산(邊山)에서 캐온 도목(桃木)과 중국에서 구한 경면주사(鏡面朱砂)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다수 증산교단에서의 의통과 해인에 대한 믿음과 달리 태극도(太極道)의 창도주(創道主)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 - 1958)는 해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도주(道主, 정산 조철제, 필자 주)께서 갑오년(甲午年, 1954) 가을에 ... 박한경(朴漢慶) ... 등을 데리시고, 해인사(海印寺) 경내에 있는 관음전(觀音殿)이자 심검당(尋劍堂) 뒤편의 다로경권(茶爐經卷)에서 사흘 동안 공부를 하셨도다. ... 근처에 있는 백련암과 그 외 여러 암자를 돌아보시고, 길에 오르셨도다.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 놓고, “상제(上帝, 증산을 가리킴, 필자 주)께서 해인(海印)을 인패(印牌)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라. 해인은 먼 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진인(海島真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電氣)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水氣)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도다. 『전경(典經)』(1974) 『교법(教法)』 제2장 53절 - 55절

해인사를 찾아가 해인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던 정산은, 해인을 인패(印牌)라고 믿는 대다수 증산교단의 주장을 애써 부인하고 우주 만물의 이치라고 해석하였다. 결국 그는 ‘인(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글자라고 풀이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만물의 근원은 바다에 있는 수기(水氣)이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전기(電氣)라는 독특한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태극도에서는 증산 강일순을 전기를 맡아 전지를 지배하는 구천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으로 믿는다. 더욱이 이러한 해석에 따라 훗날 태극도의 분파인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는 생명 기원의 원초적 힘이 바로 뇌전(雷電)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즉 대순진리회는 『대순사상(大巡思想)의 현대적 이해』(1983)에서 “뇌전(雷電)은 시동발초(始動發初)의 원천(源泉)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를 승강(昇降)하게 하여, 우주 만물을



증산교본부의 통천궁

생성하게 한다.”라는 교리를 정립하고 있다.

한편 증산교단의 가사(歌辭)로 추정되는 『채지가(採芝歌)』 「남강철교(南江鐵橋)」에 “정(定)한 날이 어김없이, 해원문(解冤門)을 열어 놓고, 비장용장(飛將勇將) 상중하제(上中下才), 육부팔원(六腑八元) 장(壯) 할시구. 비천상천(飛天上天) 하늘 적에, 해인 조화(海印造化) 손에 들고, 무수장삼(舞袖長衫) 펼쳐입고, 좌수(左手)에 높이 들고, 만국문명(萬國文明) 열어놓 제, 죽는 백성 살려 주고, 천동(天動)같이 호령하니, 만좌춘풍(滿座春風) 화기(和氣)로 다.”라는 구절이 있다.

정해진 날이 오면 비장(飛將)과 용장(勇將)으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나타나 하늘에 올라가 ‘해인조화’를 손에 들고 만국문명을 열어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해인은 하늘과 관련된 신성한 보물이며, “손에 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떤 구체적 형태를 지닌 물건으로 상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탁박사/신종교연구가

필자 소개: 김탁 박사는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외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각록과 격암유록』(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주하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박사님의 글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19회》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 미륵여래(彌勒如來)께서 감로(甘露)의 비를 내리시어 일체 중생의 미혹(迷惑)과 번뇌(煩惱)의 불꽃을 다 멸하신다...

《열반경 권 7(涅槃經 卷七)》
修一善心破百種惡 如少火能燒一切
수일선심파백종악 여소화능소일체
하나되는 착한 마음을 닦으면 백가지 악한 것을 깨뜨린다. 마치 작은 불씨가 능히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과 같다.

雖少善其實是大 破大惡故
수소선기실시대 파대악고
비록 적으나 착한 것이 실로 크도다.
이는 큰 악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末法之中 多此惡魔 熾盛世間 廣行貪淫
말법지중 다차악마 치성
若不斷淫 修禪行者

세간 광행담음
말법(末法) 가운데 많은 악마들이 이 세상에 불꽃과 같이 성해져서 널리 탐냄과 음행을 마음대로 행한다.

謂善知識 令諸衆生 失菩提路
위선지식 령제중생 실보리로
스스로 선지식이니 구세주라고 말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菩提)의 길(부처 되는 길)을 잃게 한다.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선불합중어록(仙佛合宗語錄)》
淫則殺自己之性命 盜則殺自己之精氣
음욕살자기지성명 도적살자기지정기
음행(淫行)을 한즉 자기의 성명(性命)을 죽이는 것이요 도적질을 한즉 자기의 정기(精氣)를 죽이는 것이다.

而基於外殺外道故
이심어외살외도고
이는 외살 외도가 심한 연고라

古聖云淫爲諸惡之本 可不誠哉
고성운음위제악지본 가불계재
옛 성인께서 말씀하시되 음행은 모든 악(惡)의 근본이니 가히 삼가지 아니할 것인가?

若不斷淫 修禪行者

약부단음 수선행자
만약 음행을 끊지 아니하고 선(禪) 수행을 닦는 자는

蒸沙作飯 經百千劫 只名熱沙 此非飯本故
증사작반 경백천겁 지명열사 차비본고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백천 겁을 지나도 다만 이름하여 뜨거운 모래라 한다. 이는 모래가 밥의 근본이 아닌 까닭이다.

淫有六種 共同手感畜夢淫
음유육종 공동수감축몽음
음행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녀 간의 음행이요, 동성(同性)간의 음행이요, 손으로 하는 음행이요, 생각하는 음행이요, 축생으로 하는 음행이요, 꿈으로 하는 음행이다.

雖有輕重 破失菩提一也
수유경중 파실보리일야
비록 가볍고 무거움은 있으나 보리(菩提)의 길을 깨뜨리는 것은 똑같다.

大修行人 十年乃至一生至戒 做功德
대수행인 십년내지일생지계주공
크게 행(行)을 닦아서 10년 내지 일생 동안을 제(戒)를 지켜 공을 쌓는다 해도

妄作淫事則 洩出無餘 不法最大 基本也
망작음사즉 설출무여 불기본也
망작음사즉 설출무여 불

법칙대기분야
망녕되어 음사를 지은즉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 그리하여 만에 하나도 못 이룬다. 이것이 부처님 되는 법의 가장 큰 기본이다.

如我此說 名爲佛說 不如此說則 波旬說
여야차설 명위불설 불여차설즉파순설
이같이 말씀하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며, 이같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마왕 파순(波旬)의 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도(道)가 많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1 악마 파순은 마군, 마구니(魔仇尼)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린다. 초기경전 『숫타니파타』에는 악마가 '나무치'로도 나오는데 한역하면 불령해탈(不令解脫) 즉, 해탈하지 못하게 막는 존재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악마 '나무치'의 성품과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너의 첫째 군대는 욕망이고, 둘째 군대는 혐오이며, 셋째 군대는 기갈(굶주림), 넷째 군대는 애착(갈애)이다.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 여섯째 군대는 공포, 일곱째 군대는 의혹, 여덟째 군대는 걸치레(위선)와 고집이다. (아홉째는) 그릇된 방법으로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 그리고 (열째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아만(我慢)이다. 나무치여, 이것들은 너의 병력(兵力)이다. 검은 악마의 공격군인 것이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마군을 이겨낼 수가 없다. 용자는 이겨서 즐거움을 얻는다.”

간단한 것이다. 음란을 없애주지 못하는 도는 정도(正道)가 아니며, 생로병사의 윤회를 없애주지 못하는 도는 진도(眞道)가 아닌 것이다.

本性至虛至靈 純然皆無形體
본성지허지령 순연개무형체
본래의 성품이 허(虛)에 이르고 영(靈)에 이르면 순연하고 다 무형의 체다.

出定而爲神通 亦只虛空
출정이위신통 역시허공
정(定)에 나가神通하게 되면 또 다만 허공과 같다.

若欲顯身 令人見之 身外便能了道
약욕현신 령인견지 신외편능료도
만약 몸을 나타내고자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면 몸 밖에 문득 도를 마치고

皆能變化無窮
개능변화무궁
다 능히 변화가 무궁하니라.

如此者 是因元陽精氣
여차자 시인원양정기
이 같은 것은 원양정기(元陽精氣)로 인한 것이다.

본신의 능력은 완성의 단계를 뜻한다. 이는 원양정기(元陽精氣)로 인한 것인데

원양정기란 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분신(分身)의 역사를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숫총각이 나 숫처녀의 상태, 즉 완전히 음란이 떠난 명량한 상태이다. 음(陰)이란 음란(淫亂)과 음행(淫行) 뿐만 아니라 마음 속의 온갖 부정적(不定的)인 생각, 습기고자하는 것, 그늘진 것, 슬프고 허망한 것 등을 다 합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온갖 음(陰)이 다 없어지고 나면,

云念動意動 處處分身 念停意停 處處歸真
운념동의동 처처分身
념정의정 처처귀신
이르되 생각과 뜻을 움직이시면 곳곳에 분신이 나타나고 생각을 그치고 뜻을 멈추면 곳곳에서 진리체로 다시 돌아온다.

생각하는 대로 분신(分身)의 역사(歷史)가 이루어지며 생각을 멈추면 언제든 지 다시 본체(本體)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며 마음먹는 대로 일이 다 성사(成事)된다. 이와 같이 여래(如來)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이다. 여래의 감로광명은 생미륵부처님의 분신이며 삼신산의 불로초이다. 소사에 있는 미륵도량에서 40년 동안 정진한 수도자들은 이제 능히 맨눈으로도 세상의 태양 빛보다 무량대수의 수억조 배나 빠른 감로광명을 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 (계속)*